

군산시, 지역 현안 해결·국비 확보 총력

문동신 시장, 국무실장 방문

군산조선소 준치 지원 건의

새만금 사업 6110억원 요청

문동신 군산시장(사진)이 군산조선소 정상화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 및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7일 군산시에 따르면 문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만나 군산조선

소 정상화와 새만금 개발 등 현안사업 추진 등과 관련한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문 시장은 이날 군산조선소의 도크 폐쇄가 전북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 설명하고 도크 유지에 대한 선박건조 물량 배정과 인력유지 등 군산조선소 존치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문 시장은 또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건의했다.

문 시장은 특히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서는 대통령 비서실에 전담부서 설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공공 주도 용지 매입을 통한 속도감 있는 개발을 요청했다.

문 시장은 내년도 국가예산확보와 관련해서는 새만금SOC 조기구축을 위한 동서·남북도로, 새만금 신공항, 신항만, 새만금~대야간 철도, 새만금 방수제 축조

및 농업용지 조성 등 5개 사업 6110억원을 건의하고 군산항 항로입구부 준설사업,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국도 4호선 잔여구간(장자도~관리도) 개설사업의 예산반영도 적극 요청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무엇보다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는 군산은 물론 전북경제를 뒤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박금희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



고창군, 감성돔 종묘 65만 마리 방류 고창군은 27일 구시포와 동호해역에서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감성돔 종묘 65만 마리를 방류했다. /고창=박형진기자 phj@kwangju.co.kr

심청이와 함께 하는 굿보러가자

내일 고창문화의전당

판드라마 형식 눈길

국악인 오정해 진행

고창군은 “한국문화재단(이사장 직무대리 이항수)과 29일 오후 7시 30분 고창문화의전당에서 ‘굿GOOD보러가자’ 공연을 공동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굿GOOD보러가자’는 2004년부터 13년간 전국의 중소도시와 문화 소외 지역 72곳 이상을 누비며 무형문화재를 비롯한 문화유산과 전통예술을 한자리에서 보여 주는 종합공연이다.

‘팔도의 얼굴’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재단의 전국 공모에 선정된

고창군, 울등군, 파주시 등 총 7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을 잇는 대한민국 희망리레이로 펼쳐져 호응을 얻고 있다.

‘굿GOOD보러가자’ 고창공연은 한국의 대표 고전 ‘심청전’의 스토리를 전통예술로 풀어내고 한국의 전통 공연양식인 ‘판소리’와 ‘드라마’가 합쳐진 판드라마(Pan+drama), ‘심청이와 함께하는 굿GOOD보러가자’를 선보인다.

특히 홀로그램과 영상을 활용해 공연의 분위기를 극대화하며 관객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할 계획이다.

명불허전 명인들과 함께 탄생한 ‘심청이와 함께하는 굿GOOD보러가자’는 국악인 오정해 진행으로 풍월주인, 인생별곡, 만년행락 세 마당으로 구성돼 있다.

풍월주인(風月主人)은 한국문화재단 예술단의 ‘오고무’로 시작해 안숙선 명창(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병창 및 산조 인간문화재)과 김청만 명고(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별 인간문화재)의 ‘심청가’, 원장현 명인(원장현류 대금산 조보준희 대표)의 ‘대금산조’가 펼쳐진다.

인생별곡(人生別曲)은 한국문화재단 예술단의 ‘선녀춤’, ‘시나위와 드로잉’ 그리고 ‘태평성대’가 열린다.

만년행락(萬年行樂)은 고창농악보존회(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6호)의 ‘판굿’로 관객들을 흥과 신명의 마당으로 이끌고 권원대 명인(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이수자)의 ‘줄타기’로 공연을 마무리한다.

심청이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공연 ‘굿GOOD보러가자’ 고창공연은 전석 무료공연으로 진행되며 문의는 고창문화의전당 (063-560-8041~2)으로 하면 된다. /고창=박형진기자 phj@

비응도 바이오발전소

건립 허가 취소해야

군산시의회 촉구 나서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2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산시 비응도에 추진 중인 바이오발전소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군산에 발전소 4기가 가동중이고 정부도 8기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는데, 군산에서 발전소 신설 허가가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소 연료로 목재 펠릿과 폐자재를 사용하고, 실령 목재 펠릿 100%라고 해도 결코 안전성이 확보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발전소가 건설되면 새만금 내 철단기업 유치와 친환경적 개발에도 좋지 않다”며 “발전소가 건설되는 비응도는 관광 여항이고 관광지 해수욕장, 해양소년단 체험단 체험시설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비응도에 발암물질을 포함한 미세먼지를 내뿜는 발전단지가 공존할 수 없다”며 정부에 발전소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한국중부발전은 군산2국가산업단지 발전소 터(6만6000㎡)에 5800억원을 들여 200MW급 바이오발전소를 9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가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력발전소와 닮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중부발전 자회사인 군산바이오에너지가 평가 계수를 조작해 종합평가 꼴찌였던 롯데건설을 바이오발전소 건설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군산=박금희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시민과 함께 행복한 정읍 만들기

30일 시립중앙도서관 ‘도시재생 포럼’ 개최

정읍에서 쇠퇴한 원도심을 살리고 도심 공동화 현상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 포럼이 열린다.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전북과학대학교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시민포럼은 30일 오후 2시 정읍시립중앙도서관 1층 소강당에서 개최된다.

포럼 주제는 ‘정읍시의 주인을 찾습니다’이다. 정철모 정읍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3명의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나선다.

정석 서울시립대교수가 ‘도시가 행복해야 내 삶도 행복하다’를, 임경수 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이 ‘삼공(공정, 공의, 공동체)원칙으로 시작하는 도시재생’을, 마지막으로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이사가 ‘더불어 함

께(협치)의 조건’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주제 발표자 외에도 김한수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김성주(주) 도시건축 이대 대표가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된 정읍시 도시재생에 대한 진단과 함께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와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포럼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역 내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공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정읍에서 처음 개최되는 도시재생 시민포럼에 시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전북소방본부, 시장 방문점검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이선재)는 지난 26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샘고을 시장을 방문해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세일글

“기본·원칙 준수하고 주민 보호 앞장”

백형석 장흥경찰서장

“지역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지 않는 최고의 편안함을 드리는 인권보호 경찰이 되겠습니다”

지난 26일 취임한 백형석(49) 신임 장흥경찰서장은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고 아무것도 당당한 프로페셔널 경찰상을 확립하겠다”면서 “특히 장흥은 도로구조상 굴곡이 심한 교통취약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교통안전

예방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 출신인 백서장은 경찰대(7기) 출신으로, 광주직할시 기획예산계장과 전남청 검찰계장, 전남청 치안지도관, 홍보담당관 등을 지냈다.

장흥=김영희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판선·전원주택지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2896㎡ 전망좋은 2억2백
- 금대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3548㎡ 은행 1억3천 매도 3억7천
- 화순군 동북면 가수리 1877㎡ 요양주택·사찰도 적함 6천만원
- 남평읍 우산리 대지 774㎡ 광주에서 15분거리 6500만원
-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땅 32454㎡ 판선과 농장적합 5억

주택·원룸·아파트

- 월산동 우체국부근 골목 대지 294㎡ 정원과 주택2동 2억3천
- 월산동 2층 상가 주택 대지 133㎡ 건평 143㎡ 1억4천
- 월산동 고급주택 농성초교부근 대지 352㎡ 주택168㎡ 5억2천
- 월산동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126㎡ 2층주택 1억6백
- 월산동 원룸 중 3층 23㎡ 독립생활적합 2100만원

투자·매도·교환

- 전원주택 개발할곳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임야 14479㎡ 2억천
- 담양군 봉산면 대지 10692㎡ 아파트·창고 적함 매도 12억5천
- 요양병원적합 담양군 대덕면 잡종지 8451㎡ 도로여건 좋음 7억
- 독립섬 56233㎡ 신안군 임태면 새천년대교 인근 3억5천
- 월산동 보라아파트부근 1층 65㎡ 식당·사무실용 6천만원
- 충장로5가 상업지 490㎡ 다용도 가능 7억7천

상가건물

- 월산동 대지 160㎡ 건물 419㎡ 4층임 전세3천 월3000선 5억7천
- 월산4동 새마을금고부근 2층식당건물 대지 226㎡ 매도 4억2천
- 월산동 농성초교너머 6세대 대지 206㎡ 건평 328㎡ 3억6천

감정가 이하

- 남구 송하동 산 22556㎡ 감정 2억5천선 율령 3천 매도 1억천
- 담보용 고층군 상업지 254㎡ 공사가 3억5200 은행 2억4천 매도 2천
- 유통 좋은 모텔 대지 422㎡ 건평 984㎡ 감정12억선 교환가능 8억
- 해남군 신안면 식품공장 등 적함 17344㎡ 감정 24억선 매도 12억
- 무안군 일로읍 죽산리 4137㎡ 감정 2억5200 은행 1억7600 매도 800
- 무안군 삼향읍 용포리 1969㎡ 투지에 좋음 7200만원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신안동, 해송빌라

- 광주 북구 신안동 353-16
- 21평, 5층중 3층, 2012년 신축
- 방3, 거실1, 전망좋은
- 신안다리 바로 옆, 내부깨끗
- 시세-1억 2천만원
- 매매-9천 9백만원, 즉시 입주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원
- 금호동 6층 건물(보증금 2.4억 월1,500만) 매 36억원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원
- 축석동 5층 건물(보증금 3.4억 월1,500만) 40억원
- 하남동 3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 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 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460만) 매 25억
- 쌍암동 4층 건물(보증금 1.3억 월 1,400만) 매 29억
- 쌍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450만) 매 35억
- 신가동 4층 건물(보증금 6천만 월 520만) 매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토지

- 용전동 생산농지, 대로접 9,400㎡ 매 48억원
- 산정동 생산농지, 창고용지 3,810㎡ 20억
- 산정동 생산농지 창고용지 도로접 990㎡ 5억원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45억 (물류창고, 아적장 적함)
- 광산구 내산동 임야 36,000㎡ 매 3억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답 3426㎡ 4억2천만원 (가든식당 적함)
- 장성군 삼서면 흥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농음, 남향)
-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계획관리지역 전 5,000㎡ 매 8억3천
- 담양군 월산면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16억원
- 담양군 남면 학성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정덕동 롯데마트 부근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스엔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